

전체 주제:
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

메시지 6

두 번째 단계의 이김

(3)

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십자가를 체험함

성경: 아2:14-15, 롬 6:6, 마16:24, 빌3:10, 엡2:16, 시43:4상

I. “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”—아2:14.

- A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연인이 십자가, 즉 ‘바위틈’ 과 ‘낭떠러지 은밀한 곳’ 에 머물기를 원하신다—14절 상.
 - 1. 신약에서 십자가의 일차적인 의미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—고후 4:10-12, 찬송가 461장.
 - 2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신다—빌3:10.
- B. 자아를 처리하는 십자가의 역사에는 세 방면이 있다.
 - 1.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—롬6:6, 고후5:14.
 - 2. 우리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성취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—롬 6:11, 갈2:20.
 - 3. 우리는 그분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.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올바른 의미이다—마16:24, 갈5:24.
 - a. 그 적용은 반드시 그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—롬8:13.
 - b.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—갈5:16, 25.
- C.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—빌3:10.
 - 1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넣으셨고,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매일 우리를 주조하고 계신다—롬6:3-4.
 - 2. 우리의 삶은 그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—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해 죽는—것이어야 한다—갈2:20, 고후4:10-11.
 - 3.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넣어 누르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로 주조될 것이다—롬8:28-29.

II. “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 이니라”-아2:15.

- A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연인을 부르시어 그분의 연인을 위한 부활(꽃이 핀 우리의 포도원들)을 망치는 그녀의 특이함, 습관, 자기 성찰(작은 여우들)을 주의하게 하신다.
- B.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치우치고 비뚤어져, 주로 우리의 특이함에서 표현된다—행13:13, 요삼 9-10.
 - 1. 특이함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궁극적인 표현,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마지막 최종 표현이다.
 - 2. 특이함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강한 지배자요 지휘자이다—참조 잠21:1.
 - 3. 우리의 특이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,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요인이다—참조 빌1:19-21상.
 - 4.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터를 우리의 특이함이 간교하고 은밀하게 강탈하고 소유했다. 그러므로 특이함은 우리 속에 있는 끔찍한 적그리스도이다—참조 엡3:16-17상.
 - 5. 우리 속에 있는 분열적인 요인은 우리의 특이함이다. 이것이 바깥에 있는 모든 분열의 뿌리이다—행15:36-39.
- C.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특이함에서 구출된다.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특이함을 가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부활이 따라올 것이다—마16:24, 아2:11-13.

III. 우리는 ‘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 안에’ 있다—엡2:16.

- A. 몸은 자아와 대립된다.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—골2:18-19, 23.
 - 1. 몸의 이상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몸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아이다—18, 23절.
 - 2. 몸의 건축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것은 자아이다—마16:18, 24.
 - 3. 우리가 몸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자아가 정죄되고, 부인되고, 거절되고, 거부되어야 한다—눅 9:23-24.
- B. 십자가의 역사는 몸으로 완결되고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끈다—엡2:16, 롬6:6, 8:13, 12:4-5.
 - 1. 십자가는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끌며 몸의 범위 안에서 운행한다. 몸은 십자가가 역사하는 영역이 된다—엡2:16.
 - 2. 몸의 제한은 우리의 자유를 가져가고 우리를 십자가로 몬다.
 - 3.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 극도로 처리된 때에만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재를 만질 수 있으며 몸을 알 수 있다—마16:24-25, 롬8:13, 12:4-5, 고전1:18, 23, 2:2, 12:12, 27.

IV. “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”-시43:4상.

- A. 제단,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다—겔43:13-27.
- B.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.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알고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—갈6:14, 마16:24.
- C.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처에서 십자가를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올 때 구체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체험한다—엡2:15, 21-22.
- D.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재 안으로 이끌려진다—마16:18, 24.

가

가

가
가

가

가

가

가

가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 가
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가 가

가

가,

가?

“(12:24)

가 가

가

가 가

!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